**왕하1519 Note**

**앗시리아(앗수르) / 호크마 주석**

성 경: [왕하15:19]주제1: [웃시야 왕과 이스라엘의 악한 다섯왕]주제2: [므나헴의 행적]

▶ 앗수르 왕 불이 와서...치려하매. –

앗수르 왕 '불'(Pul)의 정체에 대해서는 바벨론 열왕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를 보면 '불'왕은 바로 디글랏 빌레셀(Tiglath-Pileser,III세; B.C.745-727)과 동일 인물로서 그는 바벨론을 2년간 지배했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바벨론식으로 붙여진 이름이 '불'인 것이다.

또 디글랏 빌레셀의 비문을 보면 앗수르가 사마리아의 므나헴으로부터 공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를 더욱 뒷받침해 준다(Luckenbill).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앗수르에 공물을 바친 때는 B.C.743년 쯤으로 디글랏 빌레셀 제 3년에 해당하는 것 같다(Thiele).

한편 앗수르의 불 왕이 사마리아에 온 것이 침략인지 아니면 므낫세의 초청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다양하다. 그런데 이렇게 견해를 달리하게 된 것은 '와서...치려하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의 해석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을 (1)침략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쓰일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Hobbs),

(2)다른 사람들은 이 단어가 침략을 표현하는 경우로 쓰인 예가 있다고 보아(창34:25)

이를 침략을 나타내는 행위로 본다(B hr).

그러나 본서 기자는 침략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주로 '알라'(\*)를 썼으며(6:25; 12:17; 17:3,5), 본절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바'(\*)를 쓰지는 않았다. 따라서 불 왕이 온 것을 '침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방문이 므나헴의 초청에 의한 것인지(Thenius) 므나헴을 정당한 왕으로 인정해 그를 왕위에 앉히기 위한 것인지(Ewald)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한편 성경에서는 본절에서 최초로 앗수르 제국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 인해 앗수르가 강대국으로 팽창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Wycliffe).

그리고 본절에 나타난 앗수르 왕 불 왕위를 찬탈하여 제국을 새롭게 부흥시킨 자였다. B.C.743년이거나

B.C.738년에 일으킨 디글랏 빌레셀의 전쟁은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파급되어 므나헴에게서 공세를 내게 했다.

앗시리아 왕에게 공세를 바침으로써 므나헴은 앗시리아 통치자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 므나헴은 '불루'라는 이름을 얻었다(바벨론 왕 명부에도 그렇게 기록되었음).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므나헴'보다도 그의 바벨론식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던 것 같다.